

[COVID-19] CEO의 코로나19 극복 방향성

How CEOs can respond to the crisis and start building a resilient future



▲ 표지 클릭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염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 CEO들이 직면한 최대 난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다수 기업의 공급망이 위협받을 때, 몇 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예비 물자나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PMG는 CEO의 관점에서 현재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난 상황이 끝났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을 위험에 CEO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CEO의 당면한 임무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감염 리스크 관리이며 출장과 대면 회의의 제한, 재택 근무 실시 등을 통해서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수수료의 감면, 판매 인센티브 증가, 혹은 선별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주요 고객, 파트너, 이해관계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편 CEO는 위기대응팀을 꾸려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는 별도의 특별팀을 구성하여 매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영향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불황의 장기적인 파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망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체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비상 배송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은 코로나19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충격이 큰 상황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ERM을 업그레이드하여 단일 공급원이나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Keywords ▶

#COVID-19 #코로나19 #CEO어젠다 #위기대응팀